

앞서가는 북유럽 복지 발원지는 도서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윤송현 지음

북유럽 국가들은 10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다. 척박한 환경이었고 대부분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안데르센 동화에 등장하는 '성냥팔이 소녀'는 당대의 팍팍한 현실이 그려져 있다. 또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라스무스와 방랑자'는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 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역시 당시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스톡홀름 시스타역이 있는 갤러리아쇼핑몰 2층에는 시스타도서관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도서관을 두려는 당국의 아이디어다. <학교도서관저널 제공>

저자는 처음 방문한 핀란드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도서관은 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탐페레중앙도서관장의 말을 들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관장은 또한 "장서는 도서관의 많은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라며 "도서관은 그것이 속한 사회에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의 도서관은 가장 중심지에 건물을 상업공간이 아닌 도서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저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장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한다.

북유럽 도서관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만남의 장소로 도서관이 인식된다는 점이다. 정숙하고 조용한 공간이라는 인식보다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많이 모일 수 있게" 상정했다. 또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책을 선택할 수 있게 서가를 서점처럼 꾸몄다. 인기가 있거나 추천할 만한 신간은 판매대에 펼쳐놓아 잘 보이도록 진열하기도 한다.

특히 북유럽도서관에는 여덟 가나 무얼 만드는 공간이 있다. 일종의 메이커스페이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든다. 3D 프린터가 여덟 가나 눈에 띄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는 도서관을 매개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설명한다. 복지정책의 기본 요체는 교육으로, 정보 이해와 판단하는 힘을 키워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해 일어설 수 있는 자활에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찾고 자존감있게 노년을 보내는 노인복지와 시니어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다. 여성에게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과 장애인들이 정보를 활용해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저널·1만6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책

▲백 오피스=2018년 등단한 광주 출신 최유안 작가의 첫 장편 소설로 에너지 대기업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견제하고 협력하는 세 여성의 이야기다. 제목인 '백 오피스'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프론트 오피스 뒤에서 마케팅, 행사 개최 등을 담당하는 호텔의 부서를 칭한다. 한 치의 오차 없는 행사의 뒤면 백 오피스의 스펙터클이 펼쳐진다.



<민음사·1만4000원>

▲밤이 오기 전에=20세기 모더니즘 대표 작가인 프랑스 출신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 100주기를 맞아 국내 미공개 단편을 수록했다. 프루스트가 20대 초·중반에 쓴 작품 18편이 담겼으며 1부에 실린 6편은 프루스트 생전 발표한 작품이며 2부의 12편은 사후 발굴한 원고들이다. 2부 작품 중 8편은 프랑스에서도 2019년 처음 공개됐다. <현암사·1만6000원>



▲자연 미장=건강한 내 집과 아름다운 마을을 위한 삶의 기술, 자연 미장에 대한 안내서다. 사)한국출판진흥연구원 기술이사 등으로 활동중인 저자 김성원은 14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인도, 프랑스, 모로코와 아프리카, 이탈리아, 프랑스의 전통 자연 미장 관련 자료를 모으고, 워크숍을 통해 실행해보고, 현장에서 손수 도전한 경험을 이 책에 담았다. <문학동네·1만5000원>

▲빅테크 트렌드 CES 2022=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로,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의 동력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 CES 2022 행사 현장을 취재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경이로운 지구 우리가 함께 지켜요=어린이들에 과학자, 탐험가, 활동가, 발명가, 환경 보호론자 등 지구지킴이들의 35편의 실화와 작은 환경 운동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 라이사 스튜어트 샤프는 지구 지킴이들의 이야기를 8가지 주제로 나눠 들려준다. 세계의 산, 우림지대, 온대림, 사막, 바다 극지방 등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놀이터·1만3000원>

▲멋진 깃털을 갖고 싶어=겨울 대표 철새인 암컷 청둥오리의 보호색에 관한 책. 자신의 깃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암컷 청둥오리 청이는 깃털 색이 마른 풀숲을 닮아 천적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책은 나와 친구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고 속상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연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돌멩이도 춤을 추어요=다양한 모양의 돌멩이들이 움직이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놀이로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 돌멩이는 다른 돌멩이와 나란히 서기도 하고 무도회를 열기도 한다.

슬픔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사춘기 아이들의 성장사

호수의 일

이현 지음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소년 이 등장하는 성장 소설이다. 국내에서 90만부 이상 판매됐고, 세계 20개국에 수출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인정받은 '아몬드'는 최근 뮤지컬로 제작돼 4월 공연을 앞두고 있다. 유아인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5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려령의 '완득이', 이희영의 '페인트'도 화제의 청소년 소설이다.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 소설을 꾸준히 펴내고 있는 장비에서 또 한편의 성장소설이 나왔다. 이현 작가의 '호수의 일'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춥고 외롭던 열일곱 살 주인공 호정이 전학생 은기와 만나 경험하는 설렘과 사랑, 각자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세심한 문체로 담아낸 소설이다.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와 같아 나는 몹시 안전했다." "호수에 간 적이 있다."는 호정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책은 아프고, 슬프고, 애뜻하고, 아름다운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업 실패로 할머니집에서 지냈던 호정은 동생 진주에게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나, 즐거운 웃음을 짓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외로웠던 자신의 어린시절이 떠올라 뜨거운 감정을 느낀다.

가족들에게 냉랭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다정한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호정은 SNS도 하지 않고

폴더폰을 쓰는, '어딘지 기우뚱한 가로동'을 떠돌이게하는 전학생 은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하지만 호정과 사이가 좋지 않던 광근과 그 무리가 은기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은기가 사라져버리고 난 뒤, 죄책감에 휩싸인 호정은 친구들, 가족들과 고립을 자처한다.

"발이 닿지 않는 호수를 건너는 일은 언제나 두렵지만 믿는데, 어느 호수에나 기슭은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힘든 시간을 건너온, 또 건너갈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기슭'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소설이다.

단편소설 '기차, 언제나 빛을 향해 경적을 울리다'로 제13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현 작가는 동화집 '짜장면 불어오'로 제10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대상을 수상했다. 또 장편동화 '로봇의 별'로 제2회 창원아동문학대상을 받았으며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 <창비·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